

# 성경신학 개론

저자: 리차드 프랫 2 세 (Th.D., Harvard)

역자: 이창배 (Ph.D., UCLA)

번역 후원: 김문자 (Aunt-in-law)

제 2 강

구약의 공시적 종합



THIRD MILLENNIUM

MINISTRIES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2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 **ABOU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Founded in 1997,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a nonprofit Christian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In response to the growing global need for sound, biblically-based Christian leadership training, we are building a user-friendly, donor-support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five major languages (English, Spanish, Russian, Mandarin Chinese, and Arabic) and distributing it freely to those who need it most, primarily Christian leaders who have no access to, or cannot afford, traditional education. All lessons are written, designed, and produced in-house, and are similar in style and quality to those on the History Channel<sup>®</sup>. This unparalleled, cost-effective method for training Christian leaders has proven to be very effective throughout the world. We have won Telly Awards for outstanding video production in Education and Use of Animation, and our curriculum is currently used in more than 192 countries. Third Millennium materials take the form of DVD, print, Internet streaming, satellite television transmission, and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http://thirdmill.org>.

# 성경신학 개론

## 제 2 강 구약의 공시적 종합

### 목차

<b>I. 서론(Introduction)</b> .....	<b>1</b>
<b>II.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b> .....	<b>2</b>
A. 공시적(Synchronic)	2
B. 종합(Synthesis)	4
1. 부인(Denial)	5
2. 승인(Affirmation)	5
C. 예(Example)	6
<b>III. 역사적인 정보(Historical Information)</b> .....	<b>8</b>
A. 시(Poetry)	9
1. 두 세계(Two Worlds)	9
2. 정보의 식별(Discerning Information)	10
B. 내러티브(Narrative)	13
1. 두 세계(Two Worlds)	13
2. 정보의 식별(Discerning Information)	14
<b>IV. 종합적 구조들(Synthetic Structures)</b> .....	<b>20</b>
A. 다양한 자료들(Variety of Sources)	20
1. 성경의 계시들(Biblical Revelations)	21
2. 성경 이외의 자료들(Extra-biblical Sources)	24
B. 다양한 수준들(Variety of Levels)	27
1. 기초 수준의 구조들(Basic-Level Structures)	27
2. 중간 수준의 구조들(Middle-Level Structures)	30
3. 복합 수준의 구조들(Complex-Level Structure)	32
<b>V. 결론(Conclusion)</b> .....	<b>35</b>
<b>VI. 연구의 길잡이 (Study Guide)</b> .....	<b>36</b>
A. 복습을 위한 질문들 (Review Questions)	36
B. 적용을 위한 질문들 (Application Questions)	36

# 성경신학 개론(Building Biblical Theology)

## 제 2 강 구약의 공시적 종합(Synchronic Synthesis of the Old Testament)

### I. 서론(INTRODUCTION)

최근에 나는 조립해서 만들어야 할 책상을 샀다. 상자를 열었을 때 수많은 부품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부품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그러나 부품들 사이에 조립 안내서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앉아서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 두 장은 제 1 단계를 위한 것이었고, 다음 장들은 제 2 단계를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은 제 3 단계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안내서를 읽으며 책상 조립의 긴 과정이 몇 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고서 마음이 놓였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긴 역사를 이해하려고 할 때 여러 면에서 이와 비슷한 종류의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 사람들, 장소들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으므로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일은 압도적인 과업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공시적 접근을 한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집중한 후 그것들을 전체로 종합한다면, 그 과업은 훨씬 더 수월해지고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이 강의는 **성경신학 개론**이란 강좌의 두번째 강의이다. 이 강의의 제목은 "구약의 공시적 종합"이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구약 역사의 특정한 시기들을 따라 단계별로 계시하신 것을 어떻게 탐구하는지 살필 것이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접근법을 사용해 온 것을 보았다. 그 중 문학적 분석은 성경을 어떤 관점들을 전달하기 위한 문예적 묘사로 보는 접근법이고, 주제적 분석은 성경을 우리의 당대의 (혹은 전통적인) 주제들과 질문들을 반영하는 거울로서 보는 접근법이고, 역사적 분석은 성경을 그것이 보고하는 역사적 사건들을 보게 하는 창으로 보는 접근법이다. 우리는 또한 성경신학이 일차적으로

성경의 역사적 분석에 중점을 두며 특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에 개입하셨던 방식들을 살핀다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성경신학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역사적 분석에 기초한 신학적 사색이다.”라고 정의했다.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성경의 서술에 중점을 두고 그 사건들로부터 기독교 신학을 위한 추론들을 끌어낸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번 강의로 나아가보자.

구약의 공시적 종합에 관한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주요 문제들을 다룰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공시적 종합”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구약의 단락들이 공시적 종합에 **사용된** 역사적 정보를 전하는 방식들을 살필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구약의 역사적 정보에 대한 공시적 종합을 통해 발견되는 종합적인 신학 구조들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그럼 공시적 종합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자.

## II.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공시적 종합”이 의미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문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공시적”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릴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종합적”이란 용어를 설명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성경의 한 예를 가지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정당화할 것이다.

### A. 공시적(Synchronic)

“공시적(synchronic)”이란 단어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 즉 “함께” 혹은 “더불어”라는 의미의 전치사 썬(*sun*)과 “시간”을 뜻하는 명사 크로노스(*chronos*)에서 유래되었다. “공시적”이란 단어는 역사적 사건들에 적용될 때 “시대에 함께” 혹은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묘사한다. 우리는 “공시적”이란 용어를 성경신학자들이 자주 구약의 역사에서 동시대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탐구하는 방법을 가리키는데 사용할 것이다.

이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화 감독들이 그들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인기있는 영화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의 흐름을 전하고 있다. 그것들은 어떻게 한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는지 묘사한다. 그러나 영화가 한편의 온전한 단위를 이루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또한 장면들이라고 부르는 더 작은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다. 각 장면은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을 말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각 장면은 영화에서 한 공시적 순간, 곧 영화에서 한 시기를 나타내고 있다.

구약의 공시적 연구는 이와 아주 비슷한 접근을 한다. 공시적 종합함에 있어서 성경신학자들은 구약의 전체 역사의 흐름에 관심을 쏟기 보다는 오히려 영화의 장면들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구약의 특정 시기들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렇지만 공시적 접근들이 영화의 장면들처럼 다양한 길이의 시기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성경신학자들은 때때로 비교적 짧은 역사적 순간들에 집중하기도 하고, 때때로 비교적 긴 시기들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행한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마치 그것들이 일련의 기간에 걸쳐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긴 대화를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언급하며 “나는 조금 전에 나의 친구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더 긴 시간의 단위들에 대하여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주간 전체의 행위들에 대하여 “나는 지난 주를 산에서 보냈다.”라고 요약하거나, 심지어 한 해 전체의 행위들에 대하여 “나는 작년에 학교를 다녔다.”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 성경신학자들은 구약의 역사를 공시적 단위들로 구분할 때 이와 동일한 시간적 융통성을 발휘한다. 그들은 때때로 비교적 짧은 시간 단위에 집중하기도, 때때로 더 긴 시기들에 집중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한 순간만이라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시간은 모든 공시적 역사 기간에 흐르고 이 시간의 흐름은 역사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변화는 때때로 미미하기도 하고, 때때로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구약에 대한 공시적 접근은 해당 기간을 전체로서 살핀다. 그리고 공시적 접근은 해당 기간의 끝에 세워진 신학적 관점을 집중하여 살핀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비교적 짧은 이야기(창세기 22 장)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성경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이 부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신학적 관점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다.

성경신학자들은 또한 창세기 11 장에서 25 장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생애 곧 175 년이나 되는 아주 긴 기간을 다루기도 한다. 이런 긴 기간을 살필 때조차도 성경신학자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에 나타난 신학적 관점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다.

실제로 성경신학자들은 때때로 구약 전체를 한 공시적 단위로 여기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공시적”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폈으므로, 우리의 두번째 용어인 “종합”이란 단어를 살펴보자.

## **B. 종합(Synthesis)**

종합이란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된다. 기본적으로 종합이란 관련되는 여러 가지를 한데 묶어 통일된 하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저녁 식사를 위해 친구 집에 간다고 상상해 보라. 당신은 어떤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대답하는 것을 듣는다. 어떤 사람이 농담하면 모인 사람들은 웃는다. 어떤 사람은 늦게 오고 어떤 사람은 일찍 떠난다.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 다음 날 당신이 전날 저녁 식사에 대하여 친구에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라. 당신은 전날 저녁 모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그 저녁 모임 전체에 대하여 의미있는 요약할 것이다.

많은 점에서 이것이 우리가 공시적 종합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살필 때 하는 일이다. 우리는 역사의 한 특정 기간에 계시된 여러 신학적인 요소들이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구조 속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방식들을 묘사한다. 어떻게 공시적 종합이 특정 시기의 구약신학의 논리적 구조를 평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구약의 논리적 성격에 대한 일반적인 부인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구약의

논리적 일관성에 대한 승인을 표명할 것이다. 그럼 먼저 구약의 논리적 성격에 대한 보편적인 부인에 대하여 살펴보자.

## 1. 부인(Denial)

20 세기 중엽에 많은 비평주의적 학자들은 각 학문에서 논리의 역할을 지적하며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구별하였다. 논리가 전통적인 조직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는 것은 쉽다. 그러나 비평주의적 신학자들은 성경신학에서는 논리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의들의 복잡한 내용은 이번 강의의 범위 밖에 속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요약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비평주의적 신학자들은 논리가 소위 “헬라식 사고 방식”의 일차적인 특징이지만 “히브리식 사고 방식”과는 거의 무관한 것이라고 믿었다. 수많은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평가들에 기초하여 그들은 헬라인들이 조직신학과 매우 흡사하게 추상 관념과 논리적 질서에 초점을 맞춘다고 주장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히브리식 사고 방식은 역사적 역학 원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고 제안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약은 논리적 체계들이나 신앙 사이의 신학적 관계들에 치중하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인해 구약의 신학을 종합하는 일은 히브리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고 역지로 그것을 헬라식 구조에 짜맞추는 것에 불과하다.

## 2. 승인(Affirmation)

이러한 부인과 대조적으로, 구약의 논리적 성격에 대한 승인은 적어도 두 가지 근거 위에 서 있다. 첫째로, 대체적으로 최근의 연구들은 한 때 많은 성경신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었던 헬라식 사고 방식과 히브리식 사고 방식 사이의 여러 차이들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두 사고 방식은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매우 비슷하다.

둘째로, 구약의 신학은 논리와 이성적 사고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삶을 실질적으로 살피는 어떤 일도 세심한 논리적 성찰이 없는 것은 없다. 의심할 여지 없이 구약에 계시된 많은 것들이 인간들에 신비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일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구약의 신학이 논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if)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의 신학이 어떻게(how) 논리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구약의 신학은 전통적인 조직신학에 큰 영향을 끼친 서구 철학적 전통들의 표준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구약은 일관된 전문 용어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구약의 신학은 다양한 장르를 통해 표현되어 있다. 구약의 다양한 저자들은 그들의 신앙의 다양한 관점들을 강조했다. 구약의 어디에도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신학의 논리적 체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들이 두서가 없거나 연결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본 강의에서 나중에 볼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들은 그분의 백성에게 특별한 사건들에 대한 통찰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과 자신들과 나머지 피조물에 대하여 논리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행동하고 느끼도록 안내하였다.

공시적 종합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염두에 두고 성경 자체 안에서 이러한 접근의 예를 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 C. 예(Example)

성경을 눈여겨 보면 등장인물들과 저자들이 자주 구약을 여러 역사적 시기들로 나누고 거기서 그들이 발견한 신학을 종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이 무수히 이런 일을 하였지만, 우리의 목적상 우리는 대표적인 단락 하나만 지적할 것이다. 바울이 롬 5:12-14 에 기록한 것을 들어보라.

**(롬 5:12-14 개역개정)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단락에서 바울은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때까지를 한 공시적 단위 곧 역사의 한 시기로 간주하였다. 이 단락에서 바울의 주된 관심은 아담의 죄의 지대한 영향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순종의 지대한 영향을 예시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 요점을 만들기 위해 바울은 아담에서 모세까지의 시대의 여러 가지 신학적 특징들을 종합하였다.

롬 5:12 에서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이 온 것을 보여주는 창 3:14-19 을 넌지시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아담의 타락과 시내산 계시 사이의 기간을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시기 곧 십계명과 언약서와 같은 성문화된 율법들이 없는 시기로 묘사했다. 그는 또한 이 시기 동안 사람들이 “아담이 했던 것처럼 명령을 어김으로써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직접 주신 명령들을 어긴 것이 아니었다.

일단 시내산 계시 이전에 “율법”이 없었다고 말함으로써, 바울은 하나의 가정적인 가능성 즉 아담과 모세 사이의 기간에 살았던 사람들은 죄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문제를 다루어야만 했다. 그들에게 어길 특수한 율법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바울은 그 시대의 다른 특징 하나를 지적하며 “사망이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까지 왕 노릇 하였다.”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사람들이 사망의 저주 아래 있었다면 논리적인 유추에 의해 그들은 죄인이었음이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이 단락의 더 큰 맥락 안에서 바울은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 아담의 죄에 의해 야기된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아담의 불순종이란 단 하나의 행위가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왔듯이 그리스도의 순종이란 단 하나의 행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왔다. 이런 이유로 인해 바울은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 곧 모형이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바울의 주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주목하라. 첫째로, 그는 타락으로부터 율법 수여까지의 시간을 한 시기로 공시화했고 그리스도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다른 한 시기로 공시화했다. 둘째로, 그는 논리적인 형식으로 각 시기의 여러 특징들의 일부를 연결함으로써 각 시기를 종합했다. 간단히 말하면, 바울은 책임감 있는 성경신학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일을 했다. 그의 모델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공시적 종합이 합법적인 관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공시적 종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신약이 이 접근법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므로, 우리는 공시적 종합들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 곧 구약에서 역사적 정보를 식별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 III. 역사적인 정보(HISTORICAL INFORMATION)

이전 강의에서 보았듯이 성경신학자들은 특별히 두 가지 유형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그 두 사건들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행위 계시 즉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 즉 하나님과 그분의 사자들이 말했던 일이다.

성경신학자들은 구약의 한 시대의 신학을 종합할 수 있도록 먼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정보 곧 그들이 살피고 있는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행위들과 말씀들을 모아야 한다. 이 역사적 사실들은 그들의 공시적 종합의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얼핏 보면 이것은 하기에 상당히 쉬운 일처럼 보일 수 있다. 성경이 특정 시대에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이지만, 성경으로부터 역사적 정보를 모으는 일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약은 우리에게 그저 하나의 역사적 정보의 목록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구약은 내러티브, 시, 율법, 지혜 문학, 족보, 여러 가지 유형의 시편, 선지자들의 연설, 기타 많은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든 장르들이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에 관한 정보를 계시하지만, 이 역사적 정보는 각 장르의 문예적 특징들 안에 감싸여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성경신학자들은 각 장르로부터 역사적 정보를 모으는 방법들을 찾아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탐구할 때 시간 관계상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장르인 시와 내러티브로 국한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장르에 대하여 우리가 배운 것은 다른 장르들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여러 가지 관심사들에 대하여 일러 줄 것이다. 그럼 먼저 시가 역사적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들을 살펴보자.

## **A. 시(Poetry)**

구약의 시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시편, 지혜 문학의 일부분, 구약 예언의 많은 부분, 그리고 나머지 책들의 더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단락들이다. 성경의 이 부분들로부터 하나님의 행위들과 말씀들에 관한 사실들을 식별하기 위해 우리는 시의 문학적 특징들이 역사적 정보를 어떻게 계시하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문제점을 다룰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구약의 시가 항상 고려하던 두 세계를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 두 세계에 대한 관심이 시로부터 역사적 정보를 식별하는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구약의 시가 고려하던 두 세계를 살펴보자.

### **1. 두 세계(Two Worlds)**

구약의 시인들은 우리에게 역사에 대해 말해주는 두 개의 다른 세계에 관심을 가졌다. 한편으로 그들은 소위 “그 세계” 곧 그들이 그것에 관하여 쓰던 세계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 세계에 관하여 쓸 때 그들은 하나님의 행위들과 말씀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제공했다.

첫째로, 구약의 시는 자주 과거를 들여다보는 창을 열어주었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시적 단락 가운데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후 불렀던 노래(출 15:1-21)가 있다. 이 시를 모세가 출애굽기에 포함시킨 것은 그의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

둘째로, 구약의 시는 자주 시인 자신의 시대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창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시편 1 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묵상을 권장한다.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해 시인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들에게 주시는 지속적인 복들과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들의 패턴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 편은 그 독자들에게 그 당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통찰력을 주었다.

셋째로, 구약의 시인들은 때때로 그들의 독자들의 관심을 미래로 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사 40:1-11 에서 이사야는 유다의 포로민들이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올 때를 예언했다.

어떤 식으로든 구약의 시는 자주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적 행위들과 말씀들을 전했다. 구약의 시인들은 소위 “그들의 세계” 곧 그들의 독자들의 세계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시인들은 그들의 시가 특별한 방식들을 통해 원래 독자들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5 장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는 모세의 당시 독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도록 격려했다. 시편 1 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일을 권장하기 위해 쓰여졌다. 이사야 40 장의 예언은 국외추방에 직면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영광스럽게 귀환할 것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도록 격려했던 것이었다. 구약의 시인들은 원래 독자들이 살았던 시대 곧 “그들의 세계”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 원래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 계시들이 보이는 “그 세계”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그럼 구약의 시가 보여주는 두 세계는 우리가 성경의 시로 된 부분들로부터 역사적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방식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자.

## 2. 정보의 식별(Discerning Information)

우리는 구약의 시인들이 독자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하여 했던 말은 정말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들은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영감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주 직설적이 아닌 방식들로 역사를 묘사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시인들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들에 관하여 전달하려고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구약의 시의 문예적 관습들을 이해해야 한다.

구약의 시의 문예적 관습들을 서술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적상 네 가지 두드러진 특징들만 살필 것이다. 첫째로, 시적

단락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쓰여진 것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 특이한 어휘와 구문을 사용한다. 둘째로, 구약의 시인들은 역사적 사실들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은유, 직유, 유추, 과장과 같은 많은 수사적(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 셋째로, 시인들은 독자들 안에 억누를 수 없는 상상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자신들의 상상력 풍부한 사색들을 표현하였다. 넷째로, 시인들은 독자들 안에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그들 자신의 감정들을 전달했다. 이러한 특징들이 성경의 다른 장르들에서도 어느 정도는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네 가지 특징들은 구약의 시에 집중되어 있는 핵심적인 특징들이다.

이 특징들이 역사적 정보의 전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기 위해,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던 시적 단락인 출애굽기 15 장에 나오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의 일부를 살필 것이다. 모세가 출 15:6-7 에 쓴 것을 들어보라.

**(출 15:6-7) 당신님의 오른손이, 여호와여,  
힘차 위엄 있습니다.  
당신님의 오른손이, 여호와여,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당신님의 큰 위엄으로  
당신님은 당신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내던지셨습니다.  
당신님이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렸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단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에 대하여 딱딱한 묘사를 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홍해에서 실제로 눈에 띈 것은 아니었다. 비록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렸다.”라고 말했을지라도, 애굽인들이 불에 의해 태워진 것은 아니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러티브 부분은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는 큰 동풍을 보내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물이 다시 흐르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익사시키셨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하여 말했고, 또 지푸라기처럼 애굽인들을 삼키는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에 대하여 말했는가? 모세는 이 사건을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공격으로 특징짓기 위해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구약의 보편적인 은유를 사용했다. 그는 애굽인들의 상황을 불타버린 지푸라기에 비교하는 과장된 직유를 사용했다. 이것은 그들의 파멸의 수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섭게** 파멸당했는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모세는 또한 그의 독자들의 머리와 마음에 사건에 대한 상상력 풍부한 경험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의 열렬한 찬양을 표현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였다. 모세는 그의 시가 사건에 대한 참된 기록으로 간주되기를 의도하였다. 그렇지만 그것이 문자적이고 딱딱한 묘사로 읽혀지는 것은 결코 의도하지 않았다.

출 15:6-7 의 시적 특징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의 역사적 정보를 비교적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우리의 초점이 되는 본문의 관점에 의지하여 우리는 이 구절들을 다양하게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사적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이 본문이 수사학적 표현을 사용한 방식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기적으로 파멸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예는 우리가 주의깊게 구약의 시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밝혀 준다. 우리는 산문을 읽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를 읽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우리는 시의 특별한 어휘와 구문, 수사학적 표현, 상상적인 관심사, 감정적 영향 등을 인식함으로써 역사적 정보의 정수를 뽑아내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우리는 구약신학을 위한 공시적 종합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행위들과 말씀들에 대한 보다 더 사실적인 이해를 끌어낼 수 있다.

지금까지 시에서 역사적 정보를 식별하는 방식들의 일부를 다루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의 내러티브라는 장르를 다룰 것이다.

## B. 내러티브(Narrative)

우리 모두는 구약의 내러티브들을 잘 알고 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다른 많은 책들이 내러티브들 곧 역사적인 인물들, 장소들, 사건들에 관한 참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신학자들은 내러티브들이 역사에 관한 많은 세부사항들을 계시하기 때문에 자주 그것들로부터 많은 자료를 이끌어 낸다. 내러티브들은 말들과 연설들, 등장 인물들의 이름들,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들, 다양한 역사적인 관계들을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로 인해 내러티브들은 공시적 종합을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역사적 정보를 식별하는 일에는 내러티브들조차도 세심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시를 논의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내러티브 또한 두 세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내러티브에서 역사적 정보를 식별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 그럼 먼저 성경의 내러티브들이 두 세계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전하는 방식들을 살펴보자.

### 1. 두 세계(Two Worlds)

시인들과 매우 흡사하게 내러티브의 저자들도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었다. 한편으로 그들은 그들의 본문의 주제인 세계, 곧 "그 세계"에 관하여 썼다. 그러나 내러티브는 시와 달리 주로 과거에 집중하고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는 아주 드물게 언급한다. 모세는 역사상 훨씬 더 늦은 시기에 살았을지라도 창세기에 원시 역사와 족장들의 역사에 관하여 썼다. 구약의 저자들은 자주 그들보다 수백년 앞선 시대에 관하여 글을 썼다.

다른 한편으로 내러티브의 저자들도 독자들이 사는 세계 곧 "그들의 세계"를 다루었다. 그들은 독자들이 과거의 사건들에 비추어 그들 자신의 세계 안에서 어떤 고정된 방식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기를 원했다. 그래서 모세는 원시 시대와 족장 시대에 관하여 쓸 때 이스라엘 독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특권과 책임에 관하여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 고대 시대를 묘사했다. 구약 내러티브의 모든 저자들은 독자들을 위해 시기적으로 그들보다 앞선 과거에 관하여 글을 썼다.



구약의 내러티브들은 여러 다양한 영향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그것들은 독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송영적인 글이었다. 그것들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을 설명하는 신학적인 글이었다. 어떤 내러티브들은 당대의 국가적 사건들에 초점을 맞춘 정치적인 글이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는 반론적인 글이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도덕적인 글이었다. 그것들은 모든 종류의 신실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동기 부여의 글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구약의 내러티브들은 **교훈적**이었다. 그것들은 원래의 독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관하여 **가르칠** 의도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내러티브라는 장르에서 이 교훈적 목적은 암시적이었다. 저자들은 독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들로부터 신학적인 원리들을 추론하기를 기대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교훈적 측면은 매우 의도적이었다. 저자들은 항상 독자 자신들의 삶에 관하여 그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글을 썼다.

“그 세계”와 “그들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서 구약의 내러티브들로부터 역사적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자.

## 2. 정보의 식별(Discerning Information)

불행하게도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구약의 내러티브들을 현대의 사실적 역사 기록물과 같은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17 세기 유럽에서의 계몽 운동 이래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기록된 역사 기록물에 과학적으로 정밀한 표준들을 적용하려고 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역사학자들도 화학이나 생물학 같은 분야의 과학자들처럼 엄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표준들을 요약할 방법들은 많지만, 간단히 요약하여 말하면 이런 관점을 따를 경우 믿을만한 역사 기록물은 포괄적이고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참된 역사 기록물은 균형잡힌 설명을 줄 상황에 대한 모든 중요한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 그것들은 엄격한 정밀함을 가지고 세부사항들을 전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전할 세부사항들이 없음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독자들이 편견을 갖게 할 수도 있는 어떤 주관적인 평가도 피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대적 이상들이 발전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어쨌든 역사학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표준들에 이르지 못할 때, 사실과 허구를 혼동하는 일은 너무나도 쉽게 일어난다. 그러나 구약 내러티브의 저자들은 이러한 현대적 이상들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들이 종교적 공상들을 전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역사적 실수나 조작을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이 글을 썼던 방식은 우리의 현대적인 감각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교훈적 목적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 흔히 구약 내러티브에 잘못 적용되는 세 가지 현대적 표준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역사 기록물은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개념을 검토해 보자. 간단히 말하면, 구약의 이야기들은 저자들의 교훈적 목적에 적합한 정도까지만 포괄적이었다. 따라서 그것들은 중요한 사실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역대기로부터 한 예를 들어보자.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생애에 대한 역사를 작성할 때 열왕기상 1-11 장의 기록을 상당히 엄밀하게 따랐다. 그러나 그는 솔로몬 통치의 모든 부정적인 측면을 생략했다. 그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 성전에 이방신들을 위한 예배처소를 마련한 것, 그리고 솔로몬이 받은 심각한 예언적 책망을 생략했다.

사실 어떠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 부정적인 사건들은 매우 중요하다. 왕상 11:11-13 에 의하면 솔로몬의 실패는 결국 국가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그의 교훈적 목적들을 위해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의 많은 독자들이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지만, 역대기 저자는 독자들이 솔로몬의 긍정적인 업적들에 집중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의 성공적인 일들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록했다. 구약의 저자들은 모든 중요한 사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좋은 역사 서술에 있어야 할 포괄성이라는 현대적 표준을 따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러티브는 과거에 대한 참되고 권위 있는 기록이다.

둘째로, 구약의 저자들은 그들의 교훈적 목적이 요구하는 한도에서만 정확하였다. 정확과 진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진실을 잘못 나타내지 않으면서 사물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게 말한다. 누군가 “몇시냐?”라고 물을 때, 실제로 보다 정확한 시각은 2 시 2 분 20 초일지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두 시”라고 대답한다. 삶의 모든 관점에서 정확성은 항상 정도의 문제이다. 우리가 요구되는 만큼의 정확성을 가지고 대답하는 한, 아무도 사실을 잘못 나타냈다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구약의 저자들에게 적용된다. 그들은 그들의 교훈적 목적에 도달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만큼만 정확하였다. 예를 들어 창 1:7 에서 모세가 지구의 대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쓴 것을 고려해 보라.

**(창 1: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

여기서 모세는 히브리어 단어 [라키아]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넓디넓은 공간(궁창, 창공)”을 놓으셨다고 기록했다. [라키아]는 어떤 종류의 평평하고 단단한 물질을 의미하는 용어였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처럼 이 단단한 물질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였다.

현대 사람들인 우리는 지구의 대기에 대한 모세의 묘사가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를 포함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이 푸른 수정 혹은 청금석(lapis lazuli)으로 된 천장이나 장막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비가 내리는 것은 이 단단한 천장에 있는 구멍들이나 굴뚝들을 통해 위에 있는 푸른 물이 쏟아지는 것으로 흔히 생각되었다. 물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지구의 대기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모세에게 계시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다. 모세는 자연의 참된 상황을 잘못 나타낸 것이 아니다. 단지 그는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그에게 보이는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모세가 창 1:7 에서 도달하려고 의도했던 정확성의 수준을 과대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창 1:7 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단단한 장벽을 두셨다”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이 단단한 장벽의 위와 아래에 물을 두셨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결론짓는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그 대신에 이 역사적 기록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모세의 부정확성을 인정하고 그의 교훈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창 1:7 로부터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은 지구가 살기에 알맞은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늘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은 선하게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 믿을만한 해석은 모세와 다른 성경 저자들이 그들의 교훈적 목적에 부합하는 만큼만의 정확성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들에 관하여 말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정확성의 문제는 우리가 구약의 내러티브에 나오는 말들과 생각들에 대한 기록을 고려할 때도 대두된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자. 왕상 9:5 과 대하 7:18 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자. 먼저 왕상 9:5 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자.

**(왕상 9:5) 내가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며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대로 말이다.**

이제 대하 7:18 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자.

**(대하 7:18) 내가 너의 왕위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한 대로 말이다.**

이 두 구절의 더 큰 문맥을 보면 둘 모두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두 구절의 표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열왕기상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역대하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는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역대하에는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들이 나는 것은 본문 전승상의 오류들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모든 차이가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구약의 내러티브들이 하나님이나 다른 어떤 인물의 말과 생각을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반복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사실상 열왕기 저자나 역대기 저자는 절대적으로 정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이 기록한 것은 역사적으로 참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잘못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정확성에 대한 수준들은 현대의 정확한 역사 기록이란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교훈적 목적에 의해 결정되었다.

믿을만한 해석은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는 정확성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르는 일을 한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다윗 왕조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고,” “다윗의 자손이 항상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것보다 훨씬 더한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은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공시적 종합에서 내러티브 장르를 탐구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부정확성에 직면한다. 많은 사람들, 측량들, 지리적 언급들이 자주 현대의 과학적 표준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인 정확성의 결여가 이런 기록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들이 역사에 대한 사실을 말해 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의 정확성을 과대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대적 표준으로 보면 구약의 내러티브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는 사실을 살펴보자. 믿을만한 역사 저술자들은 그들의 기록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고 절대로 그들의 역사 서술이 사건들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인 견해나 가치 판단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는 객관성이란 것이 정도의 문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역사 기록이 계속되어 오는 동안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견해들이 그들의 기록을 왜곡하여 실제로 역사를 잘못 나타내게 하는 경우들은 항상 존재해 왔다. 그러나 가장 객관적인 역사학들에게조차도 피할 수 없는 선입관들이 있었다. 적어도 이러한 선입관에 의한 선호는 그들이 어떤 사건들을 전달할 것이고 어떻게 그것들을 묘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역사 기록이 전적으로 객관적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이것은 구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나님은 구약의 저자들을 영감하셔서 그들의 독자적인 견해들을 형성하도록 하셨다. 이 목표는 그들이 무엇을 생략하고, 무엇을 포함하고, 어떻게 포함한 것을 묘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영향을 주었다. 때때로 이 목표는 그들이 그들의 선입관과 평가를 대담하게 표현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모세가 롯이 소돔 근처에 장막을 친 것을 전달하며 기록한 창 13:13의 말씀을 들어보라.

**(창 13:13)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를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우리는 모세의 소돔에 대한 평가를 피해서는 안 된다. 그가 그 도시에 대한 그의 견해를 피력했지만 그의 도덕적 관점은 하나님에 의해 영감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확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악한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거나 “소돔이란 도시는 악한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들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요약하면,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구약의 내러티브들이 역사 기록의 현대적인 표준들을 충족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단지 내러티브들은 우리가 구약의 신학에 대한 공시적 종합을 할 수 있는 완전히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약에서 역사적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들의 일부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제인 종합적 신학 구조들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본 강의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구약 역사의 여러 시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들이 종합적이고 논리적으로 일관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방식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IV. 종합적 구조들(SYNTHETIC STRUCTURES)**

종합적 신학 구조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들이 서로 일치하므로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일관되고 논리적인 관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들 사이에 있는 논리적 연관들을 포괄적으로 전부 다 이해한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들이 서로 분리되거나 논리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말이다. 바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시들은 신앙의 논리적인 패턴들 곧 우리가 종합적 신학 구조들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하여 두 가지 주된 사항을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러한 종합적 신학 구조들을 식별하기 위해 그것들을 이끌어낼 다양한 자료들을 다룰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 신학 구조들이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보자.

##### **A. 다양한 자료들(Variety of Sources)**

신학 구조들을 식별하는데 사용할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할 때, 우리는 먼저 성경의 계시들을 살피고 그 다음으로 성경 이외의 자료들을 살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기꺼이 사용해야 하지만, 그 자료들은 이 두 가지 기본적인 범주로 나누어 살피는 것이 좋다. 그럼 먼저 우리에게 신학 구조들을 보여주는 성경의 계시들을 살펴보자.

## 1. 성경의 계시들(Biblical Revelations)

우리가 구약의 어느 시기의 신학 구조들을 식별하려고 할 때 성경은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관심사이다. 그러나 자주 제기되는 질문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논의의 편의상 우리는 성경의 단락들을 고려할 시기와 관련지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것이다. 첫째는 공시적 성경 단락으로 고려 중인 역사적 시기를 다루는 성경 부분들이다. 둘째는 선시적 성경 단락으로 고려 중인 시기보다 더 이른 시기(선대)의 역사를 다루는 성경 부분들이다. 셋째는 후시적 성경 단락으로 고려 중인 시기보다 더 늦은 시기(후대)의 계시를 다루는 성경의 부분들이다. 그럼 먼저 신학 구조들을 식별하려고 할 때 공시적 성경 단락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자.

우리의 논의에서 공시적 단락들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동시대에 쓰여졌던** 단락들이 아니라 **동시대를 묘사하는** 단락들이다. 한 시기의 신학에 대한 정보가 성경의 한 단락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구약 역사의 시기들은 적어도 두 번 이상 묘사된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성경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모을 필요가 있다.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의 일치성을 받아들이고 지지한다. 우리는 한 시기의 역사와 신학에 대한 모든 성경적 논평은 참되고 우리가 그 시기에 관하여 알고 있는 다른 모든 것과 논리적으로 일치된다고 주장한다. 성경의 저자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단락만으로 우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기꺼이 성경의 많은 공시적 단락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특정 시기에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끌어 내어 결정해야 한다.

공시적 단락들 이외에도 우리가 성경의 선시적 단락들로부터 이끌어 내야만 하는 때도 많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기록 시기상 먼저 쓰여진 성경 부분들이 아니고, 구약 역사상 선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다. 선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자주 후대의 신학적 구조들에 조명을 준다.

예를 들어 창 12:1-3 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후손들과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루는 창세기의 여러 장들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아브라함의 생애의 신학 구조들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없다. 이 문제는 선시적 단락들 곧 역사상 선대를 다루는 성경 단락들에 의해 답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창 1:28 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들인 아담과 하와에게 번성하고 온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숫자적이고 지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땅 위에서 확장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항상 필수적이었다. 후대에 모세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기록할 때 그는 이러한 더 이른 신학 구조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땅에 초점을 맞추신 것은 그분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하시어 아담의 원래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인간의 온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지배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었다.

우리는 구약의 기록들이 하나님께서 선대에 이미 계시해 주셨던 것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많은 신학적 관점들을 설명하지 않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역사의 한 특정 시기의 신학 구조들을 연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선시적 계시들에 대하여 항상 의식하고 있도록 해야 한다.

공시적 단락과 선시적 단락 이외에도 후시적 단락들 곧 역사상 후대를 다룬 단락들도 신학 구조를 다루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다른 유형의 단락들을 다룰 때 말한 것처럼, 후시적 단락들은 반드시 기록상 후대에 쓰여진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역사상 후대를 다루는 단락들이다. 예를 들어 창 12:3 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

**(창 12:3)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 12:3 의 후반부에 의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복주시기 위한 통로로 부름받았다. 그러나 창 12:3 의 전반부에 대하여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온 세상에 미칠 이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 이중의 과정을 통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의구심이 일어난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후시적 성경 계시를 살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 72:17 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보라.

**(시 72:17 개역개정)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시편 72 편은 아브라함 시대보다 천년 쯤 늦은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다. 그의 이름이 “영구히 지속될”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이 시편은 다윗의 위대한 자손 곧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갖 보화를 받으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 시 72:17 은 솔로몬의 후대에 적용되는 통치 주제를 언급하기 때문에 창세기 12 장의 후속 계시이다. 그러나 시 72:17 에는 아브라함 시대의 신학 구조들에 관하여 무언가 말해 주는 것도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시편 72 편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방식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시편 72 편의 다른 절들은 아브라함의 복이 전쟁을 통하여 세계로 미칠 것을 암시한다. 메시아가 악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들 가운데서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실 때 아브라함의 왕적인 자손과 함께 서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통찰은 아브라함에 관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다른 그룹의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서로 교류한 것을 전하고 있는 사실에 의해 확인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시키시는 갈등의 과정을 통해 그분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임할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다.

이 예가 보여주는 것처럼 더 이른 시기의 신학 구조들은 더 늦은 계시가 그것들을 분명하게 해 줄 때까지 언급되지 않거나 애매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경우에 후시적 성경 계시는 우리가 더 이른 시기의 신학 구조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구약 역사의 한 특정 시기의 신학 구조들을 보다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모든 유형의 성경 계시 즉 공시적, 선시적, 후시적 계시로부터 그것들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시기들을 특징짓는 신학 구조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두번째 주요 자료 즉 성경 밖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를 살필 것이다.

## 2. 성경 이외의 자료들 (Extra-biblical Sources)

우리가 구약의 한 시기의 신학 구조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성경의 어떤 단락도 신학적인 진공 상태에서 쓰여지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약의 저자들은 그들의 독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등장인물들과 공유하던 신념들과 신학 구조들이란 문맥 안에서 본문을 썼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이외의 두 종류의 계시를 통하여 이러한 신학적 체계들을 알려 주셨다. 첫째로, 하나님은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곧 일반 계시를 통하여 그것들을 알려 주셨다. 둘째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특별 계시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주셨다.

구약과 신약은 태초부터 모든 사람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적어도 어느 정도는 참된 신학을 배워 왔다는 것을 가르친다. 시편 19 편과 롬 1:18-21 과 같은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성품 곧 그분의 도덕적 요구들과 죄의 결과들을 분명하게 계시하신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죄인들이 자주 일반 계시로부터 알게 된 것을 억누르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을 납득하는 일에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의 참된 신학을 이해하고 있다.

일반 계시의 실재로 인해 구약의 저자들은 항상 그들 이야기의 역사적 인물들과 후대 독자들이 모두 많은 참된 신학적 관점들을 자신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했다. 그들은 많은 기본적인 신학 구조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은 명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현대 신학자들이 일반 계시에 대하여 잊어렸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자주 오해되는 한 구절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창 22:12 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이려는 것을 막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읽는다.

**(창 22:12 개역개정)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불행하게도 이 구절은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 자주 오해된다. 천사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했기 때문에, 많은 해석자들의 제안은 하나님께서 이야기의 이 순간 전까지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 전혀 모르셨다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이 시기의 신학에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 계시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정반대의 것을 가리킨다. 롬 1:20 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지성과 같은 그분의 “보이지 않는 성품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죄인들이 이 지식을 억누르고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계시는 모세가 아브라함의 생애의 이 순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준다.

일반 계시는 자주 성경 저자들에 의해 당연히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방인들이 요나나 다니엘과 같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이 선지자들이 명시적으로 말한 소수의 일에 전적으로 근거하여 그들의 신학적 관점을 형성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 이방인들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천지의 참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구약 역사의 어떤

시기의 신학을 특징짓는 신학 구조들을 파악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성경 저자들이 일반 계시를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쓰여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일반 계시외에도 성경 이외의 두번째 자료 곧 성경 이외의 **특별** 계시도 구약 역사의 어느 시기의 신학 구조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꿈, 환상, 음성 등을 통한 특별 계시를 주셨음을 말하고 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것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많은 특별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특별 계시들은 멜기세덱이나 심지어 요셉 당시의 바로와 같은 비이스라엘인들에게도 주어졌다. 구약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특별 계시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고대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졌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창 7:2 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보라.

**(창 7:2)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둘씩을 너와 함께 데리고 들어가라**

창 7:2 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성경의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짐승이 정결하고 부정한지 계시해 주셨다는 기록은 없다.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일을 특별하게 노아나 노아 이전의 어떤 다른 사람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이다.

구약 역사의 한 시기를 특징짓는 신학 구조들을 탐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특별 계시들을 주셨을 수도 있다는 암시들도 의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성경 이외의 다른 특별 계시들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가 살피고 있는 시기의 일관되고 종합적인 구조들이 보다 더 완벽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구약의 한 시기의 신학 구조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신학 구조들의 여러 수준들을 살펴보자.

## B. 다양한 수준들(Variety of Levels)

역사의 특정 시기들 안에서 구약신학의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배열들을 탐구할 때 다양한 수준들의 신학 구조들이 있다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매우 간단한 구조들에서 매우 복잡한 구조들에 이르는 폭넓은 분포 범위를 갖고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일반적인 세 가지 수준의 신학 구조들을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기초 수준"의 종합적인 신학 구조들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중간 수준"의 종합적인 신학 구조들의 한 예를 살필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복합 수준"의 종합적인 신학 구조들을 검토할 것이다. 그럼 먼저 구약 역사의 여러 시기들에 제시된 신학을 특징짓는 기본적인 논리적 체계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 1. 기초 수준의 구조들(Basic-Level Structures)

가장 기초적인 신학 구조들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들과 말씀들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과 암시에 나타난다.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이 논리적으로 교차되는 방식들 중 몇 가지를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한 특정 단락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예시할 것이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행위들과 말씀들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인 교차들의 종류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들이 서로 연관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하나님의 행위들은 자주 그분의 말씀들과 교차된다. 이전 강의에서 보았듯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형식으로 그분의 행위를 앞섰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행위와 거의 동시에 오며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을 설명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행위 뒤에 오며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의 의미를 성찰했다.

동시에 하나님의 행위도 그분의 말씀에 빛을 던져 주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행동하셨을 때, 그분의 행위는 그분의 말씀이 올 것을 준비함으로써 그분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거의 동시에 행동하셨을 때, 그분의 행위는 그분이

설명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조명해 주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행동하셨을 때, 그분은 이전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그렇게 행하셨다.

그러나 이외에도, 기초적인 신학 구조들은 하나님의 행위들이 그분의 다른 행위들과 논리적으로 교차되는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논리적인 일관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난다. 몇 가지 가능성만 말해 보자. 때때로 하나님의 한 행위는 다른 행위에 더해지거나 결합되었다. 때때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한 일은 그분이 수행하셨던 다른 일을 예표했고, 하나님의 행위들은 추가적인 행위들을 위한 무대를 준비했다. 때때로 하나님의 행위들은 다른 행위들을 일어나게 했다.

그리고 이외에도, 기초적인 신학 구조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들이 다른 말씀 계시들과 논리적으로 교차되는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가능한 조합이 수없이 많지만 몇 가지 경우만 들어보자. 한 말씀이 다른 말씀에 더해지는 경우도 있었고, 한 말씀이 다른 말씀의 논리적인 기초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한 말씀이 다른 말씀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이 서로 연관되는 다양한 방식들은 많은 논리적인 구조들을 수립한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와 말씀의 교차는 셀 수 없이 많고 복잡한 논리적 암시들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암시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특정 시기들에 세우셨던 종합적인 신학 구조들 곧 일관된 신학 관점들을 형성했다.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을 염두에 두고, 한 특정 단락에서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의 교차가 어떻게 일관된 신학 구조들을 형성하는지를 예시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하와의 창조 이야기의 한 부분 곧 창 2:15-22을 생각해 보자. 거기서 우리는 잘 알려진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게 된다.

**(창 2:15-22 개역개정)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 .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의 행위들과 말씀들 사이에 있는 논리적인 교차들의 일부를 생각해 보라.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사람으로 그것을 돌보도록 하신 15 절로부터 시작된다. 이 행위는 18 절 전반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차된다. 언뜻 보기에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삶이 굉장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18 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5 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위를 재고하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18 절 후반절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22 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행위를 통하여 성취될 일을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행위들과 말씀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간단한 신학 구조 곧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생긴 일관성 있는 일련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동산을 돌보도록 하셨지만 이 과업은 남자와 여자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여러 행위들도 종합적인 신학 구조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로 교차하고 있다. 하나님은 먼저 동물들을 창조하여 준비하시고 아담으로 19 절에서 그것들에게 이름을 주게 하시며 동물들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도록 하셨다. 20 절은 우리에게 아담이 동물들 중에서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고 말해 주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아담과 동물들 사이의 상호 작용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하나님의 이러한 행위들은 간단한 신학적 관점 곧 이런 일들을 보는 논리적인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정하셨지만 그것들 중에서는 사람을 위한 돕는 배필이 될만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18 절에 기록된 두 개의 계시적 말씀들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교차를 볼 수 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진술은 곧이어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논리적인 연결은 인간의 받아들이기 힘든 독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돕는 배필의 창조였다는 일관된 신학적 관점을 드러낸다. 이 간단한 예는 우리가 구약에서 자주 만나는 것을 예시한다. 일관된 신학적 관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신학 구조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행위들과 말씀들의 교차를 통하여 계시되어 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약 역사의 시기들을 특징짓는 중간 수준의 신학 구조들을 살펴보자.

## 2. 중간 수준의 구조들(Middle-Level Structures)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들과 말씀들의 중요성은 우리가 중간 수준의 복잡성을 갖는 종합적 신학 구조들을 살필 때 더욱 더 분명해진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위들과 말씀들은 하나 하나 서로 고립되어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들은 우리가 고찰하는 역사 시기를 특징짓는 좀 더 복잡한 다른 신학 구조들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많은 종류의 중간 수준의 신학 구조들이 있지만 우리의 목적상 그 중 하나인 하나님의 언약들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우리는 먼저 언약들의 논리적인 역학적 원리들을 약속하고, 그 다음으로 이 논리적 구조가 역사의 한 시기의 신학을 파악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예시할 것이다. 그럼 먼저 언약들의 논리적인 역학적 원리들을 살펴보자.

구약 이스라엘의 신앙이 언약적이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 언약의 개념은 성경 전체에 퍼져 있다. 언약들에 대하여 말할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그분의 특별 계시들의 일관성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하는 한 가지 측면만 살펴볼 것이다.

구약의 언약들은 제각기 독특한 특징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세 가지 주된 요소들을 이해하는 논리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그 세 요소들은 하나님의 은택, 인간의 충성, 그리고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라는 결과이다.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는 이 세 요소들 사이의 논리적인 연관에

의해 지배되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을 보존하시는 방식으로 은택을 베푸셨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킴으로써 그분께 충성을 보이도록 요구되었다. 게다가 구약의 각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는 저주의 결과들을 규정하고 있었다.

구약 역사의 모든 시기가 이러한 논리적인 언약 구조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음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행위들과 말씀들의 기본적인 구성을 보는데 도움을 주는 틀을 이루고 있었다. 때때로 하나님의 계시는 그분의 언약적 은택 곧 그분의 백성을 향한 호의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다른 행위들과 말씀들은 인간의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곧 인간들이 그분의 은택에 반응하는 방식들을 표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들은 자주 복들과 저주들이란 결과들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우리가 구약의 어느 시기의 신학 구조를 파악하는 일은 이런 언약적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각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를 살피는 것에 크게 의존한다.

이 중간 수준의 종합적인 구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기 위해 창세기 2 장의 하와의 창조에 대한 예를 좀 더 살펴보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 장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최초로 맺은 언약의 시기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다. 다음 강의에서 이 언약의 독특한 점을 논의할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 인간의 충성, 복과 저주의 결과들이라는 논리적 구조가 이 단락 안에 나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방식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분의 동산에 두셨을 때 아담에게 놀라운 은택을 베푸셨다(창 2:8).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충성할 책임도 주신 것 또한 주목하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일하며/섬기며[아바드]” 그곳을 “돌보아야/지켜야[샤마르]” 했다(창 2:15). 이 구절들의 배후에 언약적 구조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호의를 베푸셨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아담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에덴 동산에서 일하며 그것을 돌보아야 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담의 상황을 인식하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에게 더 많은 은택을 보이셨다(창 2:18). 그 때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줌으로써 충성의 책임을 감당하기 시작하였고, 동물 중에서는 그를 돕는 배필이 될만한 것이 없음을 바르게 깨달았다(창 2:19-20).

셋째로, 우리는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며 동물 중에는 그의 돕는 배필이 없음을 깨달은 일을 통해 보였던 그의 신실함의 결과를 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그의 돕는 배필인 하와라는 선물을 갖도록 복을 주신 것이다(창 2:21-22). 이 단락에는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이 없지만, 만일 아담이 그의 책임을 잘 이행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아담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이 간단한 예를 통해 우리는 언약들과 같은 중간 수준의 종합적 구조가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와 말씀 계시들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기초적인 수준과 중간 수준의 종합적 구조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복합 수준의 구조들을 살펴보자.

### 3. 복합 수준의 구조들(Complex-Level Structures)

복합 수준의 신학 구조들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신학의 틀 혹은 신학의 체계이다. 이것들은 매우 폭넓어서 많은 기초 수준과 중간 수준의 구조들을 포함하고 다른 개념들과도 결합된다. 구약 신학 안에는 복합 수준의 신학 체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신학 체계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이 강의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교리를 요약한 후 한 예를 통하여 그것이 구약 역사의 한 시기의 신학 구조들을 보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교리는 하나님의 피조계에 대한 그분의 전포괄적인 계획을 가리킨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목표를 향해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인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준비함으로써 이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정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인 사람을 거룩한 에덴 동산 안에만 두셨을지라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번성하고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동산의 경계를 땅 끝까지 확장할 소명이 있었다. 우리는 창 1:28 에서 다음과 말씀을 읽는다.

**(창 1:28)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죄를 짓고 타락한 후 사람들은 이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고 힘을 얻을 필요가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의 구원과 통치를 도처에 확장할 소명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소명에 실패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2 위되신 성자께서 인간으로 오시어,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의 정당한 보상을 받으셨을 때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 하늘에서 예수님은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악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다. 그 때에 온 땅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들로 가득찰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온 땅을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다. 계 21:9-23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계 21:9-11, 22-23 개역개정)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만물이 완벽한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시어 그분의 나라를 확장할 임무를 감당해 오도록 하셨다. 구약의 신자들이 이 목표를 향해 이루었던 모든 진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분의 위대하신 계획을 성취하는데 이바지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는 일에 대한 성경의 이러한 비전은 하나님의 계시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는 전 포괄적인 종합적 신학 구조를 형성한다. 그분의 나라에 대한 계획은 구약에서 그분이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일의 배경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통치를 온 땅으로 확장시키는 그분의 형상에 의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 신학 구조는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논리적 구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복합 수준의 신학적 체계가 구약 역사의 특정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 그 예로 다시 한번 창세기 2 장에 나오는 하와의 창조를 고찰해 보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교차하는 많은 것들을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크신 은택을 베푸신 것, 그분이 아담에게 충성을 요구하신 것, 아담이 그의 책임들의 일부를 성취한 것,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복을 받은 것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언약의 역학적 원리들의 논리적인 배열도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 구조들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신학에서 발견된다.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태초에(창세기 1 장)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분의 세상에서 담당할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셨다. 그분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낙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일에 사용될 의로운 도구로 부름받았다. 그러나 아담은 홀로 그의 왕국 소명을 성취할 수 없었다. 남자 혼자서는 번성하여 온 땅을 다스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그분의 나라에서 담당할 역할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줄 그의 돕는 배필을 주심으로써 아담을 한층 더 축복하셨다. 하와가 아담 곁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번성하여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받도록 준비하는 일을 향해 크게 전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복합 수준의 신학 구조를 배경에 두고 하와의 창조를 보면, 하와의 창조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구약 역사의 여러 시기들이 많은 수준에서 종합적 신학 구조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기초 수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들과 말씀들이 서로 교차하는 것에 주목한다.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중간 수준의 신학 구조로 확대하면 우리는 일련의 하나님의 계시들이 더 큰 신학적 배열의 논리 안에서 조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와 같은 훨씬 더 큰 종합적 구조들을 사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일관성이 훨씬 더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V. 결론(CONCLUSION)

이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신학자들이 어떻게 구약신학의 공시적 종합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는 공시적 종합이 구약 역사의 특정 시대들에 있었던 하나님의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에 대한 묘사라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는 또한 구약의 여러 가지 장르로부터 역사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 역사의 특정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시들이 갖고 있는 종합적 신학 구조들을 여러 가지 수준에서 어떻게 식별하는지 살펴보았다.

구약신학에 대한 공시적 종합을 하는 일은 성경신학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우리가 구약의 특정 시대들 동안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위들과

말씀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때, 우리는 전체 성경을 통하여 신학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더 잘 탐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VI. 연구의 길잡이(Study Guide)

### A. 복습을 위한 질문들(Review Questions)

1. "공시적"이란 용어를 논의하고 그것이 성경신학에서 무슨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시하라.
2. "종합"이란 용어를 논의하고 구약의 논리적 성격에 대한 일반적인 부인에 대하여 말하고 우리가 구약의 논리적 일관성을 시인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3. 바울은 롬 5:12-14 에서 공시적 종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4. 시와 내러티브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두 세계를 설명하라.
5. 구약의 시가 보여주는 두 세계는 우리가 역사적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6. 구약의 내러티브들로부터 역사적 정보를 식별할 때 그것들이 현대의 사실적 역사 기록과 같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7. 종합적인 신학 구조들과 우리가 구약에서 그것들을 식별하는데 사용하는 다양한 자료들에 대하여 논의하라.
8. 기초 수준의 구조들, 중간 수준의 구조들, 복합 수준의 구조들을 논의하고 예시하라.

### B. 적용을 위한 질문들(Application Questions)

1. 공시적 종합은 우리가 한 성경 단락에 대한 구속사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2. 당신이 성경을 오늘에 적용하려고 할 때 논리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3. 이 강의는 구약 신학의 성격을 서구적인 철학적 전통들의 표준들과 구별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당신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4. "그 세계"와 "그들의 세계"를 구별하는 것은 구속사의 한 시기에 대한 공시적 종합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5. 성경 저자들이 그들의 교훈적 목적들이 요구하는 한도에서만 정확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6. 우리가 성경 역사를 해석할 때 어느 정도까지 객관적이 되려고 해야 하는가?
7. 우리가 성경신학을 하려고 할 때 더 이른 시기의 계시와 더 늦은 시기의 계시를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8. 일반 계시는 성경신학의 과업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9. 모든 언약의 세 가지 주된 요소들은 우리가 오늘 성경을 순종해야 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10. 이 강의를 통하여 당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인가?